

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

1. 일시·장소 : ' 21. 5.12(수), 12:00~17:20 서울-도쿄 연결 화상회의
- 서울 :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호
- 도쿄 : Hotel Okura 東京
2. 주최기관 : 한일경제협회, 한국무역협회, 일한경제협회,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
3. 참가자 : 총 73명
- 한국측 : 이관섭 체어맨(한국무역협회 부회장) 등 42명
- 일본측 : 아소 유타카 체어맨(아소시멘트 회장) 등 31명
4. 회의주제 : 한일, 함께 창조하는 미래
- 세션 1 :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
- 세션 2 :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
5. 회의 개최결과

□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인 ‘한일, 함께창조하는 미래’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역할 수행

- 코로나19 팬데믹 및 한일관계의 악화 지속 등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, 한일의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, 한일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

□ 주요 제언내용

① 복수국가간 협정(RCEP, CPTTP)을 통한 한일경제협력 강화방안 제언

- 과거에 묻히면 미래는 없고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음을 강조
- 디지털, 전기·수소차 등 한일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협력, 한일 양국 발전에도 기여

② 한일경제협력 11년의 회고 및 중단없는 경제인·3국 진출·청소년교류 등 제언

- 경제인회의의 4회 개최연기, 110건의 제3국 공동진출, 청소년 교류(26회, 2,300명), 풀뿌리 민간교류 지속, NHK ‘지구리얼 한일기술협력의 기억’ 비디오 소개(현대차의 기술지원 및 자동차 산업발전)

③ 수소협력→제3의 시장 공동진출, 국가 인증기관 교류 및 국제 표준화 협력 제언

- 수소차 공동 협업한다면,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. 운송·저장 등 서로 협력분야 찾아 협력한다면, 인프라 확대가 기대됨

④ 미래세대 교류를 통한 관계 복원 및 한일경제협력 제언

- 한국청년인재의 활용 (인턴십, 인재 채용)
- 청소년 교류 확대 (소년, 대학생 교류)

6.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

□ 세션1 (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)

□ 발표자 :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□ 주 제 : 복수국가간 협정을 통한 한일 경제협력 강화방안

1.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: 새로운 시각, 국제무역환경의 변화

- ①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(GVC)의 확산세 둔화
- ②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내 무역의 확대
- ③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: 아시아GVC, 유럽GVC, 북미GVC
- ④ 혁명적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임금 기반 가치사슬의 유리성 축소
- ⑤ 저임금 기반의 수출 비중 축소, 최첨단 기술의 개발 및 보유국과의 연계 강화 중요
- ⑥ 글로벌 무역의 서비스 및 디지털화
- ⑦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일수입과 밀접한 관계
- ⑧ 한일 상호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가치, 특히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에서 밀접한 연계된 가치사슬
- ⑨ 고령화 문제 해결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

2. 왜! 복수국가간 협정인가

- ① WTO 다자체제의 쇠퇴
- ② 복수국가간 협력의 시대 도래

- GATT/WTO시대(1960~2000) ⇒ 양자FTA시대(2000~2010) ⇒ 복수국가간협정(PA)시대(2020~)

3. 한일 경제협력 방안

- ① WTO 체제내에서의 협력 (개혁과 협상)
- ② RCEP의 조기 발효 및 협력 확대

- 중국 중심의 역내 가치사슬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활용

- ③ 한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도전 과제, CPTPP 확대 발전을 위한 일본의 역할

□ 발표자 : 고레나가 가즈오(是永 和夫)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
 □ 주 제 : 한일교류 11년을 되돌아보며 ~ 제3국지역공헌, 차세대 교류 등 ~

1. 대지진 이후 전환기의 해, 한일 양 협회 간 교류 협력사업의 전개
 -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연금 증정식
 - 2016년 제23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(미나미산리쿠)
 - 2018년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(동경)
 - 2020년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, 최초 서울과 동경 연결, 화상회의 개최
 2. 주한일본기업 CSR(기업사회공헌) 활동 지원 사업
 - 2019년 제5회 주한일본기업CSR 지원사업 수료식
 - 2020년 제6회 주한일본기업CSR 지원사업 수료식
 3. 한일경제연계 제3국 시찰 미션
 - 2013년 제1회 한일경제연계 제3국시찰미션 (인도네시아,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)
 - 2017년 제4회 한일경제연계 제3국시찰미션 (몽골, 신울란바토르 국제공항)
 4. 한일청소년교류
 - 2017년 제2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(평창)
 - 2018년 제25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(히로시마)
 5. 한일 교류협력의 방향
 - 경제교류, 인재교류 · 육성, 문화교류의 활성화
- ※ 'NHK 지구리얼 한일 기술협력의 기억' 비디오 상영
- 현대차의 자동차산업 발전 과정 회고(미쓰비시 자동차의 기술 협력)
 - 한국이 발전해야 일본도 자극을 받아 자동차 산업이 더욱 발전

○ (한국외대) 복수국간 협정은 한일FTA의 효과 기대, 구체적 협력형태 (인프라 협력, 정부조달, 지역협력, 비즈니스 협력)를 질문

- (KIEP) 디지털, 전기 · 수소차 등 한일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협력, 한일 양국 발전에도 기여

○ (삼성전자) 한일 양국 기업은 조달과 공급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

- 한일은 원원관계임을 깊이 있게 생각, 기업의 시각 공유 필요성

○ (SJC) 제3국 프로젝트 110건으로 확대, 최근에는 중국 대두로 축소경향

- 3국 협력은 파이낸스 이용 등 메리트(이점)가 있어서 협력, 한국은 약속이행의 장점 보유, 함께 절차탁마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함
- 국민적 감정, 불매운동 등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고 있어 어려움
- 청소년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기여

○ (스미토모화학) 한일 국민 감정의 경제 파급을 우려, 양국 풀뿌리 차원의 교류 계속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됨

- (日체어맨) 풀뿌리 차원의 교류 프로젝트를 강화 · 확대 · 진화시켜 나가 기 위해,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육성·지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

○ (NHK) 언론의 입장에서 '국민여론 어렵다는 상황' 임, 대일보다 대한 감정이 더 나쁘며, 왜 한국을 다루는가? 왜 필요한가? 라는 이야기임

- 한일 양국 경제관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, 강조 필요
- 한일은 필수불가결의 관계, 국민감정 개선에 도움
- (韓코디네이터) 일본의 반한감정 악화를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함. 미래를 함께 나아간다는 일념으로 전진 필요. 차세대 사업 의미가 크며, 예 산 · 인원 확대하도록 노력

○ (산업연구원) RCEP 타결은 간접적 한일 FTA의 효과, CPTTP 한국가입은 미국의 참여를 시야에 두고 어떤 역할분담이 가능한지?

- (KIEP)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, 차세대 기술협력력을 추구한다면 양국 발전으로 이어질 것임

○ (숙명여대) 요즘은 대학수업에서 한일협력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, 교류가 끊어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, 대학생 간 교류기회 제공을 제언

- 교토대학의 2년간 숙대 방문 교류, 반응이 좋았었음

□ 세션2 (한일 공통과제의 실현)

□ 발표자 : 권낙현 H2KOREA(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) 대외협력센터 센터장

□ 주 제 : 수소경제사회·탄소중립에 대하여

1.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. 특히, 청정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수소에 주목
2. 한국 정부의 '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' 2019.1 발표
 -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단계별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제시
 - 2020. 7. 한국판 뉴딜을 발표, 수소 경제의 미래 제시
 - ※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% 감축하고,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, 모든 에너지 정책의 핵심에 수소
3. 글로벌 수소 경제 시장전망과 세계 주요국의 수소 경제 전략
 - 2050년 전세계 수소수요 급증으로 전체에너지의 13%, 7.5GtCO₂의 온실가스 감축, 4조 달러의 매출 발생
4. 한국의 수소 경제 이행 과정과 수소산업의 현황
 -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(2019.1.17.)
 -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과 발전용 연료전지 현황
 - 수소 충전 및 생산 인프라 확대 전략 : 지역별 수소관련 특화산업
 -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
5. 글로벌 수소협력 네트워크 구축 (한일 협력)
 - 신기술, 부품, 소재, 장비, 인프라 기술 협력
 - 수소 수입국과 수출국 간 협력 체계 구축
6. 결론
 - 글로벌 저탄소 경제 질서를 대비해 국가의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,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도 신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
 - 또한, 글로벌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국제협력이 필요
 -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로 미래 사회를 대비한 기술 및 산업협력을 증진하여, 미래 글로벌 수소산업시장에서 양국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로 활용
 - (한일협력) 수소협력→제3의 시장 공동진출, 국가 인증기관 교류 및 국제 표준화 협력 제언

□ 발표자 : 치기라 타이조 (千吉良 泰三)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

□ 주 제 : 주한일본기업 CSR활동지원 사업

- 한국대학생이 주한일본기업에서 업무의 사고방식 및 추진방식을 배우는 인턴십 -

1. CSR 사업 배경과 사업목적 및 특징
 - 인턴십 현황 및 한국 대학생의 어려운 취업 현황에 대해서
 - 업무의 사고방식 및 추진방식 습득을 통한 자기 성장 도모 및 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 등
2. 사업 개요 및 실적 소개
 -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, 일한경제협회,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공동주최로 SJC 및 인천기업연합회, 부산일본인회 등 협력기관으로 참여
 -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35개사의 기업 및 단체 참여, 지원자 총 2,459명 가운데 기업현장에서 실습받은 실습자는 총 226명
 - 2021년 3월 실습종료자 현황 : 취업 94명 (SJC 및 실습받은 기업)
3. 참가 학생들의 소감 및 수용기업측의 코멘트 소개

※ 'NHK BS 뉴스, '캐치! 세계의 시점' WORLD NEWS IN PERSPECTIVE

○ (한국외대) 수소가격이 중요, 수소 로드맵에 대해 질문

- 수소활용 기술에서 한일은 EU보다 열위, 수소전기차에 포커스, 탈탄소 위해 제조업에서의 수소활용 전략에 포커스 필요
- (수소융합얼라이언스) 수소의 양은 증가될 것임(그린수소/재생에너지, 그린수소/천연가스, 블루수소/CO₂ 포집), 해외에서 수소도입 타당성 조사중이며, 자동차 사용 수소는 한계가 있어 산업·발전용 등을 검토 중임. 한일은 수전해 기술이 EU보다 약하나, 한일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

○ (베트남에너지연구소) 미국 방문자 백신 제공으로 멕시코의 미국 방문객 증가, 코로나로 한일은 왕래 금지 상황으로 상기의 방향연구를 제언

○ (마루베니) 수소 관련 전세계 동향에 주목하고 있음,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으며, 협력을 바라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

- (수소융합얼라이언스) 수전해 부분은 EU보다 약하나, 수소활용과 연료 전지는 월등함. 수소차 공동 협업한다면,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함. 운송·저장 등 서로 협력 분야 찾아 협력한다면, 인프라 확대가 기대됨
- (스미토모상사) 수소관련 마루베니의 질문과 같은 관심(연료전지)
- (베트남에너지연구소) 원전 오염수 이슈, 한일이 협력하여 해결 제언
 - 이스라엘(비자면제), 미국(자국 격리면제, 백신제공)
- (한일친선협회) 기업인 입국 부활(특별입국절차) 제언
 - 교류, 빈도수가 중요. 방역 능력 신뢰하여 비즈니스 트랙 부활
 - 호혜평등 근거, PCR 검사 조건, 개방 필요
- (도레이첨단소재) 지구규모의 공통관심사항에 대해 한일이 심도 있게 논의, 솔루션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좋은 한일관계를 구축
 - 관심 있는 분야부터 협력, K-POP(문화교류), 청소년(고교생, 대학생) 미래세대 교류
- (한국미쓰비시상사) 그린수소 부족(좁은 국토, 신재생 에너지 과제), CO2 감축 어려움, 한일 함께 협업 필요
 - 안전 규격 통일, 사업 수월할 것이며, 회의에서 본격 논의 기대
- (주한일본대사관) 한일 경제관계 감정(원전)과 실리(3국진출) 양립, 실리를 찾아 나가야 함
 - 실리적인 윈윈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이 중요
- (주일한국대사관) 청소년 교류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, 탄소 중립이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으며 태양광·온실가스 감축 등 한일협력을 기대

□ 전체 자유토론

- (코마) 꼬인 한일관계, 한일 간 ‘소년·소녀 교류’ 제언
 - 동서독 감정의 벽 허무는데 소년 교류(18만명)가 기여
 - 소년 교류부터 비대면으로 시작(그림·미술활동), 문화·예술·스포츠 교류를 제언
- (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) 파주(인삼)-사세보시(수산물) 특산물 교류협력, 소도시 교류부터 시작, 민간교류 통해 단계적으로 관계 복원
- (한국무역협회) 미래분야 협력 기대,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가 과제
 - 한기련에서 매년 20명 규모 참가, 이번에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축소
- (CJ재팬) 정치와 별개로 경제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하며, 청소년 등 미래 교류 지속이 필요
- (경단련) 코로나19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문제 발생, 한일 양국 견고한 신뢰 관계 강화, RCEP 조기체결 기대
 - 정치·외교도 견고한 관계 필요하며 RCEP이 제도적 요인이 될 것임
 - 전 세계적으로 미중관계 복잡, 한일이 연계해서 할 일이 나 올 것임
- (일본상공회의소) SJC 인턴십 사업 지속 필요 (135사 226명 참가)
- (외무성) 한국은 중요한 이웃, 미래지향 관계 구축을 향한 경제계 노고 응원
- (경제산업성)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 인식, 미래 향해 신뢰관계 구축. 외부인사에 한일협력의 필요성 PR 필요성 제시 (외부사람 인식 궁극)
 - 11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가 희망, 협회·재단사업 지속 지원

○ (호텔 오쿠라) 호텔 오쿠라에서 한국 신라호텔 출범을 지원(20년 이상 인력파견), 고교생 캠프·인턴십·폴뿌리 상호이해 증진사업 확대 필요

- 한일 양국 상호 이해하면서 교류 기회 확대

○ (교세이국제특허정보) 코로나 사태 진정 후, 새롭게 바뀐 환경속에서 경제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

-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가운데, 교류기회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

- (韓코디네이터)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‘국제결혼 아이디어’ 소개

○ (산업부) 다자간 FTA, 수소분야 등 한일 간 협력 확대 기대

- 반도체·자동차→ 수소경제로 협력 확대, RCEP 체결→한일경제협력을 동아시아로 협력 확대 기대

□ 총괄·마무리

○ (日코디네이터) RCEP 계기로 아시아 연계 체제 구축, 수소사회 실현, 인재 육성 확대 등 코로나 극복 후 다음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

○ (韓코디네이터) 청소년 교류 확대, 소년·대학생 교류 등 다음 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 기대

○ (日체어맨) 감정의 존재 남아 있어서 일한경제협회에 과제 요청

- 청소년 교류(역사, 연혁, 앞으로의 방향, 숫자통계), 기업간 교류(구인난, 취업난, SJC 인턴사업 실적 수치화), 자매도시 통계(사세보-과주 등 교류사례 증가)

- 데이터, 숫자 통계를 보면 동기 부여 (1~2개월 내 정리, 배포)

○ (韓체어맨) 고교생·인턴십 등 평가하고, 양국 감정 되돌리는 방안으로서 무역협회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임을 언급

- 원전 오염수 방출문제(과학의 문제)이 불신·불안 해소

- 미래세대 교류 지원

- 제3국 협력 프로젝트에 중국 경쟁자로 부각, 한일 협력·경쟁력 강화

- 에너지, 수소 등 협력 기대

-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(블록체인 기술 활용), 싱가포르 등과 호환시스템 협의중이며, 백신 여권 호환되면 교류확대 및 경제회복에도 도움

○ (일한경제협회) 청소년 교류, 대학생 교류(한일학생미래회의, 한국어과 있는 대학) 지원하고 있으며, 지도에 없는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음

○ (한일경제협회) 한일고교생교류캠프(2004년 시작) 확대 희망하나, 정부예산 없이 순수 회원사 회비로 운영 중, 유소년 교류 확대 및 효율적 지원 위해서는 대안 마련이 과제임

- 대학생 교류도 2006년 이래 15년 간 지속 지원중이며, OB아닌 대학생도 참여

- SJC 인턴십 평가, 일본기업 취업에 공헌, 日기업 및 기관에 감사

- 11/1~2 한일경제인회의 대면회의로 개최 예정, 한국 방문을 기대

[첨부]

1.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기본일정

2.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명단

3.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화보

4.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 결과

[첨부 1]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기본일정

시 간	내 용
09:00~11:00	화상회의 사전 리허설
11:30~12:00 (30)	접수 (COEX Conference Room 3F 327호)
12:00~13:00 (60)	오찬회 (COEX Conference Room 3F 327호 / 도시락(일식))
13:30~13:35 (05)	개회 (사회자)
13:35~13:45 (10)	개회 인사
(05)	▶ 이 관 섭 한국측 চে어맨 (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)
(05)	▶ 아소 유타카(麻生 泰) 일본측 চে어맨 (아소시멘트(주) 회장)
13:45~13:57 (12)	코디네이터·양국 주최기관 인사
(03)	▶ 이 수 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((주)GH Holdings 회장)
(03)	▶ 다카다 노부아키(高田 伸朗) 일본측 코디네이터 (NRI사회정보시스템(주) 上席컨설턴트)
(03)	▶ 서 석 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
(03)	▶ 고레나가 가즈오(是永 和夫)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
14:00~14:55 (55)	세션(Ⅰ) :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
(15)	○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「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한일 경제협력 강화방안」
(15)	○ 고레나가 가즈오(是永 和夫)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「교류 11년을 되돌아보며」
(25)	○ 1세션 질의응답
14:55~16:00 (55)	세션(Ⅱ) :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
(15)	○ 권낙현 한국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현대자동차 R&D품질강화추진위원 「수소경제사회·탄소중립에 대하여」
(15)	○ 치기라 타이조(千吉良 泰三) 일한경제협회 상무이사 「주한일본기업 CSR(인턴) 활동 지원사업」
(25)	○ 2세션 질의응답
16:00~16:20 (20)	커피브레이크
16:20~17:00 (40)	전체토론
17:00~17:20 (20)	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চে어맨 총괄 양국 주최기관 인사 / 폐회

[첨부 2]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명단

[한국측 참가자 명단]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 考
1	(社)韓國貿易協會	常勤副會長	李 官 燮 LEE Kwan Sup	Chairman
2	(株)GH Holdings (社)韓日經濟協會	會 長 常任理事	李 洙 喆 LEE Soo Chul	Coordinator
3	(社)韓日經濟協會	副 會 長	徐 錫 崇 SEO Seok Soong	主催機關 代表
4	對外經濟政策研究院(KIEP)	先 任 研究委員	徐 湊 敎 SUH Jin Kyo	1Session 發表
5	H2KOREA對外協力CENTER (韓國水素融合Alliance) 現代車R&D品質強化推進委員	CENTER長	權 洛 顯 KWON Nak Hyun	2Session 發表
6	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. (社)韓日經濟協會	會 長 常任理事	李 泳 官 LEE Young Kwan	企業
7	共生國際特許情報 (社)韓日經濟協會	代表理事 常任理事	朴 南 淑 PARK Nam Sook	〃
8	光成企業(株) (社)韓日經濟協會	顧 問 監 事	黃 昊 均 HWANG Ho Kyoon	〃
9	KOMAR	代表理事	權 寧 定 KWON Yeung Jeung	〃
10	Samho Green Investment, Inc.	TEAM長	金 志 哲 KIM Ji Chul	〃
11	殷珉洋行	代表理事	金 賢 日 KIM Hyun Yel	〃
12	三鎬貿易(株)	代表理事	昴 星 SUBARU Hoshi	〃
13	Earth Thermal Convergence Technology Co., Ltd.	代表理事	朴 相 奎 PARK Sang Gyu	〃
14	BOK創業投資	總括支配人	徐 永 錫 SEO Young Seuk	〃
15	ILL HO eng	代表理事	李 南 恩 LEE Nam Eun	〃
16	新星電子企業(株)	代表理事	李 善 峴 LEE Sun Hwan	〃
17	Zeobuilder Co.,Ltd.	部 長	李 俊 雨 LEE Jun Woo	〃
18	(株)京德産業	代表理事	陳 官 輝 JIN Kwan Hui	〃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 考
19	三星電子(株)	PRO	黃 眞 吾 HWANG Jin O	“
20	Vietnam Energy 研究所	常任顧問	高 光 立 KO Kwang Rip	經濟團體
21	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	會 長	高 東 郁 Ko Dong Uk	“
22	産業研究院	研究委員	司 空 穆 SAKONG Mok	“
23	韓日親善協會	副会長	楊 仁 集 YANG In Jip	“
24	中小企業振興研究會	會 長	李 章 範 LEE Jang Bum	“
25	(社)韓國貿易協會 國際事業本部	本 部 長	趙 學 熙 JO Hak Hee	“
26	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	指導委員	洪 起 正 HONG Ky Jeong	“
27	KyungHee Cyber Univ.	教 授	吳 泰 憲 OH Tae Heon	學界
28	韓國外國語大學校	教 授	李 地 平 LEE Ji Pyeong	“
29	淑明女子大學校	教 授	李 亨 五 LEE Hyung Oh	“
30	産業通商資源部	事 務 官	문 성 용	observer 당일접수
31	(社)韓國貿易協會	室 長	金 男 奎 KIM Nam Kyu	事務局
32	(社)韓國貿易協會	TEAM長	河 珠 蓮 HA Ju Yeon	“
33	(社)韓國貿易協會	代 理	李 官 載 LEE Kwan Jae	“
34	(社)韓日經濟協會	事務局長	趙 德 卯 CHO Duck Myo	“
35	(社)韓日經濟協會	部 長	金 正 鎬 KIM Jung Ho	“
36	(社)韓日經濟協會	課 長	徐 光 賢 SUH Kwang Hyun	“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 考
37	(社)韓日經濟協會	課 長	李 裕 卿 LEE You Kyong	“
38	(社)韓日經濟協會	研 究 員	朴 忍 宣 PARK In Sun	“

[東京 會議場]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考
1	CJ Japan(株)	代表取締役 社長	林 暲 逸 LIM Kyung Il	韓企連 副會長
2	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 (駐日韓国企業連合会事務局)	支部長	朴 龍 奎 PARK Yong Gyu	
3	駐日韓国大使館	經濟公使	金 玟 澈 KIM Min Cheol	observer
4	駐日韓国大使館	商務官補	金 琮 洛 KIM Jong Lak	“

※ 일본 도쿄회의장은 [긴급사태선언]으로 인해 참가자 긴급 축소 운영

[일본측 참가자 명단]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考
1	日韓經濟協會 麻生시멘트(株) / 九州經濟連合會	副會長 會 長	麻生 泰 Aso Yutaka	Chairman
2	N R I 社会情報시스템(株)	上 席 컨설턴트	高田 伸朗 Takada Nobuaki	Coordinato r
3	日韓經濟協會/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	専務理事	是永 和夫 Korenaga Kazuo	1Session 發表
4	日韓經濟協會	常務理事	千吉良泰三 Chigira Taizo	2Session 發表
5	(株)HOTEL OKURA東京	取締役会長	池田 正己 Ikeda Masaki	
6	住友化学(株) 経営企画室	主任部員	薦 慶子 Tsuta Keiko	
7	住友商事(株)	課長代理	清水 来 Shimizu Kitaru	
8	日本經濟団体連合會 国際協力本部	上席主幹	野村 良寿 Nomura Yoshihisa	
9	日本商工会議所 国際部	課長	西澤 正純 Nishizawa Masazumi	
10	日本放送協會 解説委員室	解説主幹	出石 直 Ideishi Tadashi	
11	丸紅(株) 市場業務部 ASIA大洋州TEAM	課長	竹内 崇恵 Takeuchi Takae	
12	三菱商事(株) 地域総括部 東ASIA・大洋州TEAM	次長	橋本 栄治 Hashimoto Eiji	
13	外務省 ASIA大洋州局 北東ASIA第一課	日韓交流 室 長	武田 克利 Takeda Katsutoshi	observer
14	經濟産業省 通商政策局 韓国室	室 長	出雲 晃 Izumo Akira	“
15	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	常務理事	内田 敏明 Uchida Toshiaki	事務局
16	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	事業開拓 部長	須藤 俊 Sudo Shun	“
17	日韓經濟協會青少年交流CENTER	CENTER長	金 侑 貞 Kim Yujung	“
18	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		伊沢 雅子 Isawa Masako	“
19	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		新井 尚美 Arai Naomi	“

[SEOUL 會議場]

No	所 屬	職 責	姓 名	備 考
1	在韓国日本国大使館	公 使 經濟部長	西永 知史 Nishinaga Tomofumi	observer
2	韓国三井物産(株)	代表理事社長	森山 朋之 Moriyama Tomoyuki	SJC理事長
3	韓国伊藤忠(株)	代表理事社長	長谷川 浩二 Hasegawa Koji	
4	韓国東レ(株)	副代表	片岡 智彦 Kataoka Tomohiko	
5	韓国丸紅(株)	代表理事社長	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	
6	韓国三菱商事(株)	代表理事社長	佐藤 利宣 Sato Toshinobu	
7	Sumisei Chemical Co., Ltd.	社 長	岡田 州平 Okada Shuhei	
8	三菱UFJ銀行(株)	SEOUL支店長	藤本 淳 Fujimoto Jun	
9	日本貿易振興機構SEOUL事務所	所 長	三根 伸太郎 Mine Shintaro	
10	日本商工会議所SEOUL事務所	所 長	橋爪 孝徳 Hashizume Takanori	
11	(株)Mizuho銀行SEOUL支店	支店長	頃安 俊郎 Koroyasu Toshiro	
12	(株)Mizuho銀行SEOUL支店	TEAM長	篠原 弘俊 Shinohara Hirotooshi	
13	在韓国日本国大使館	商務官	大西 英司 ONISHI Eiji	observer 당일접수

[첨부 3]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화보

[회의장 전경]



이수철 코디네이터



이관섭 체어맨

서석송 부회장

[발표자]



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

권낙현 H2KOREA 센터장

[자유토론]



이지평 외국어대학 교수



황진오 삼성전자 프로

모리야마 한국미쓰비시물산 사장

[자유토론]

니시나가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



권영정 KOMAR 대표이사



고동욱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회장

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



양인집 한일친선협회 부회장



(코로나 방역 장비 설치)

사공 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


이형오 숙명여대 교수

고광립 베트남에너지연구소 상임교문



사토 한국미쓰비시상사 대표이사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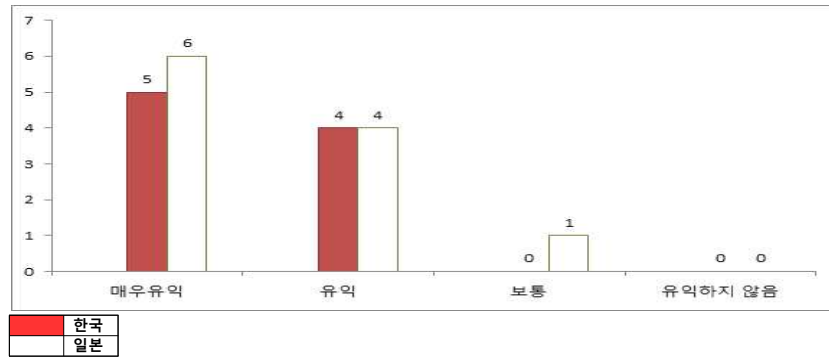


문성용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

박남숙 교세이국제특허정보 대표이사

[첨부 4] 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 결과

1. 회의 내용이 유익하였습니까?



2.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?

[한국]

- 정치 · 외교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한일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경제계가 먼저 이렇게 만남을 갖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유익하였다.
- 경제를 협력한다는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기본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며, 정치적 이익이 배제된 동 회의가 매우 의미 있었다.
- 미래 한일 협력방안, 특히 수소경제에 있어서의 한일협력이 기대된다.
- 한일교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고,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.
- 공감의場이었으며, 새로운 정보와 한일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
- 솔직하게 한일경제인간에 대화할 수 있었던 회의였다고 생각한다.
- 양국간 이해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회의였으며, 어려운 가운데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매우 의미있었다.

[일본]

- 한일협력이 가능한 수소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.
- 산업과 민간교류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.
-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역사, 향후 대응해야 할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되어 좋았다.

- 한일 양국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.
-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며,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.
-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.
- 일본측 발표 내용에서 한일협력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.
- 한국측의 발표내용에서 무역협력, 수소 활용에 대한 한국측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.
-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면 회의를 하게 되어 좋았으며, 발표 및 논의 내용도 좋았다. 그리고, 한국 경제인 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.
- 일본기업의 연대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.

3.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?

[일본]

- 일본측의 발표내용에 중복감이 있는 것은 다소 유감이었다.

4. 주제발표 및 회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「평가 · 의견」에 대해서

[한국]

-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. (예 : 고교생 교류, 청소년 교류, 인턴교류 등)
- 젊은 세대들은 편견이 없고,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기성세대보다 훨씬 기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며, 그만큼 한일경제협력은 희망적이다
- 정치가 빠진 회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으며, 청소년(고교생) 교류 등과 같은 협력사업에 직원 자녀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.
- 일본측의 발표 내용도 한국측 처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.
-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. 상황이 어렵고, 양국 간 관계가 나쁘더라도 민간인 교류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.
- 한일 양국간 대학생 교류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.
- 정치 개입으로 한일간 경제협력이 실패한 사례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여,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고교생 교류를 확대하고, 소년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

것입니다.

- 정치를 떠나 경제와 문화교류는 이어져야 한다. 양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류 사업 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면, 경제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.
- 경제인들의 상호 협력이 양국 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, 가능하면 상호간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.

[일본]

- 일본측에서도 미래 한일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
- 우리들이 미래를 말하게 될 때는 그 대상 세대는 젊은이라고 생각한다. 환경문제에 대한 산업계의 한일협력에 주력하고, 그것을 고교생, 대학생 등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이 유효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.
- 한일무역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 [중국]과의 관계는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. 중국시장도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場이 된다면, 보다 유익한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.
- 모두가 경제산업교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. 정치 · 외교를 탓하지 말고 우리 경제인 스스로가 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해 가야 한다.
-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 양국 간에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양국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, 인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계속해서 활발한 교류를 이 회의를 통해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.
- 코로나 상황에서 회의를 준비하고, 개최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다
-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, 한일 양국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하지만, 아직 진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.
- 어려운 한일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만, 이러한 교류회의를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.
- 회의 내용도 좋았으며, 회의 운영 방식 등도 큰 참고가 되었다.
- 산업의 변화에 맞춰 소프트, 콘텐츠라고 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스타트업 기업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면 좋겠다.